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4년제 졸업생을 중심으로

황남희¹⁾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7~10차(2010년~2013년) 자료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은 혼인상태와 용돈수준, 동아리활동, 독서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평소 독서량이 많은 경우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여가활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완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바람직한 여가문화활동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공헌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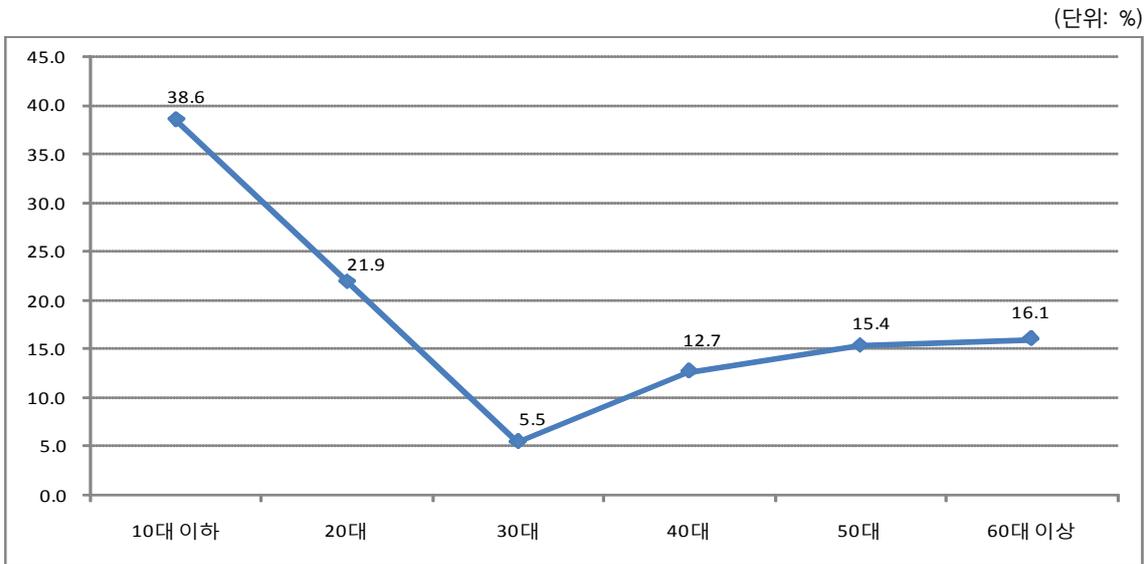
2000년대 이전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이 중점을 두고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1997년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는 지난 수십년 간의 압축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며 우리사회에 급속한 변화를 불러왔다.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와 맞물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갈등과 개인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개인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아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욱, 2011). 청소년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타성과 사회성, 공동체성 등을 함양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시키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이경상, 2014). 이렇듯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1995년에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하고, 대학에서도 자원봉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복·김규희, 2008; 이성은, 2009; 권현수, 2010; 최항순·정태자, 2010; 허성호·정태연, 2010; 도중수, 2011).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 자원봉사활동의 일상화된다면 사회적인 긍정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2년 기준 15.9%(국가통계포털, 봉사활동현황자료, 추계인구자료, 2015. 2. 6차 인출)에 지나지 않는다. OECD(2014)에서 자원봉사활동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지난 1개월간 다른 사람 돕기(helping others)에 참여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3%로 OECD 평균 4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72%이며, 캐나다와 미국도 각각 69%와 62%이다.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2년 봉사활동현황 및 추계인구 자료, 2015. 2. 15차 인출

[그림 1]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가 38.6%로 가장 높고 20대는 21.9%, 30대 5.5%로 전 생애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0대 부터는 10%대를 유지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율이 증가해야 하겠지만, 특히 30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졸업 이후 30대 전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중고생 및 대학생에 초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와 효과성, 지속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김성종·엄성호, 2002; 홍연숙, 2002; 이혜숙, 2003; 김옥·송미영, 2006; 박성복·김규희, 2008; 이성은, 2009; 권현수, 2010; 최항순·정태자, 2010; 허성호·정태연, 2010; 도중수, 2011). 혹은 은퇴 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초기적 연구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초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고생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수동적으로 대부분 고교 또는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이혜숙, 2003; 이경상, 2014). 따라서 학교 졸업 이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의무감이 사라진 경우에 어떠한 요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지 파악한다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연구대상을 청년층으로 한정할 경우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995년 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이후, 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영향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실태와 참여요인, 지속성,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층 중에서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드물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졸업 이후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층에 중점을 둔 자원봉사활동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층은 자원봉사활동 본래의 순수한 동기와 의미부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학생생활문화 속에서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2014).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도 대부분 학점취득 등의 이기적인 동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자아존중감, 도덕성 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혜숙, 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는 자원봉사 관련 사전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전교육을 받을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증가한다(김성종·엄성호, 2002; 김옥·송미영, 2006). 그러나 성별과 경제수준 등 개인적인 특성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김성종·엄성호(2002)는 성별과 학업성적, 경제수준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이며, 여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은 경우,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옥·송미영(2006)의 결과에서는 성별과 경제수준은 자원봉사활

동의 참여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중도탈락 및 지속에 관한 연구가 홍연숙(2002), 서영숙·남진열·김상미(2012)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참여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종교 이외에 성별, 학과, 학년, 경제적 지위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연숙, 2002). 고교시절 봉사활동 관련 특성도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봉사활동기관 담당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서영숙·남진열·김상미,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이타성, 사회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혹은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고(정준교, 2005; 박성복·김규희, 2008; 허성호·정태연, 2010; 도중수, 201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이성은, 2009),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시킨다(김진숙, 2000; 도중수, 2011 재인용).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현수, 2010), 리더십개발에도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항순·정태자, 2010).

한편 권현수(2010)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 64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고생과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높은 대학교 졸업 이후의 연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설문조사를 통한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성은(2009)의 연구만이 유일하게 청소년패널자료와 패널모형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소규모 특정지역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의 7차~10차(2010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의 7~10차(2010년~2013년)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1차년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총 6,000명을 대상²⁾으로 교육경험,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다시 말해 한국교육고용패널은 1

2)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이다.

차년도 당시 대표성 있게 추출된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에 대한 패널자료이다. 그러나 고3코호트의 경우 남성패널의 군입대와 그와 관련된 졸업시기의 지연으로 여성패널과 노동시장 진입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7차년도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 남성을 보정패널 756명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7차년도 이후의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가문화생활 변수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과 혼인상태, 거주지역, 부모동거여부, 경제활동 참여여부, 용돈수준이다. 여가문화생활 관련 변수는 동아리활동여부와 운동참여여부, 독서량, 영화관람여부, 문화예술공연 관람여부, 스포츠 관람여부이다. 청소년의 자원봉사가 여가문화생활의 하나이므로 다른 여가문화생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연령이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2004년 기준 중3과 고3 코호트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령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는 연령이 다른 집단이며, 2010년(7차)에 추가된 보정패널코호트는 보다 연령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예=1, 아니오=0
설명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혼인상태	기혼=1, 미혼=0
	거주지역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3
	부모동거여부	예=1, 아니오=0
	경제활동참여	예=1, 아니오=0
	용돈수준	연속형, 로그로 치환
	동아리활동	예=1, 아니오=0
	운동참여	예=1, 아니오=0
	독서량	0권=1, 월 1권 미만=2, 월 1권 이상=3
	영화관람	예=1, 아니오=0
	문화예술공연관람	예=1, 아니오=0
	스포츠관람	예=1, 아니오=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한 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는 이항변수이므로 패널분석 중 패널로지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패널로지트분석은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는 연구에 포함된 설명변수 외에도 청년층의 개인적 특성 및 능력,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학교 및 가정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정효과모형은 이와 같이 관찰되지 않는 시간불변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제가 가능하다. 패널분석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hnstom and Dinardo(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IV. 분석결과

1.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2013년 기준 4년제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 설문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부, 후원이 있습니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봉사를 제공하는 나눔활동인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나눔활동인 기부와 후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종속변수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3년에 16%로 2010년 1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설문문항이 기부 및 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는 반대로 한달 평균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은 월평균 2013년도 1시간으로 2010년 약 5시간 30분에 비해 1/5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내는 회비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은 2013년 28만원으로 2010년 15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및 회비(기부금)의 변화는 대학졸업 이후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제약 증가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2010년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의 비중은 46%지만, 2013년에는 약 2배에 가까운 80%

로 증가하였다(2011년 53%, 2012년 71%).

이상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종합하면,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체에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봉사활동 행태에서도 변화가 확인되었다. 대학졸업한 이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회비(기부금)는 증가하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은 감소하였다.

〈표 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 명)

	7차 (2010년)	8차 (2011년)	9차 (2012년)	10차 (2013년)	전체 (7~10차)
참여율	12.9(168)	13.8(187)	14.3(190)	16.3(220)	14.3(765)
전체	1,307	1,358	1,329	1,352	5,346

주: 1) 2013년을 기준으로 4년제대학 졸업생임. 따라서 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60.5%, 2011년 50.1%, 2012년 25.1%, 2013년 0%임.
2)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ANOVA 분석결과 F=2.28로 10%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회비 및 기부금

(단위 : 시간:분, 만원, 명)

	7차 (2010년)	8차 (2011년)	9차 (2012년)	10차 (2013년)	전체 (7~10차)
참여시간1)	5:24	3:00	1:48	1:06	2:42
회비 및 기부금1)	15.4	19.8	24.8	28.1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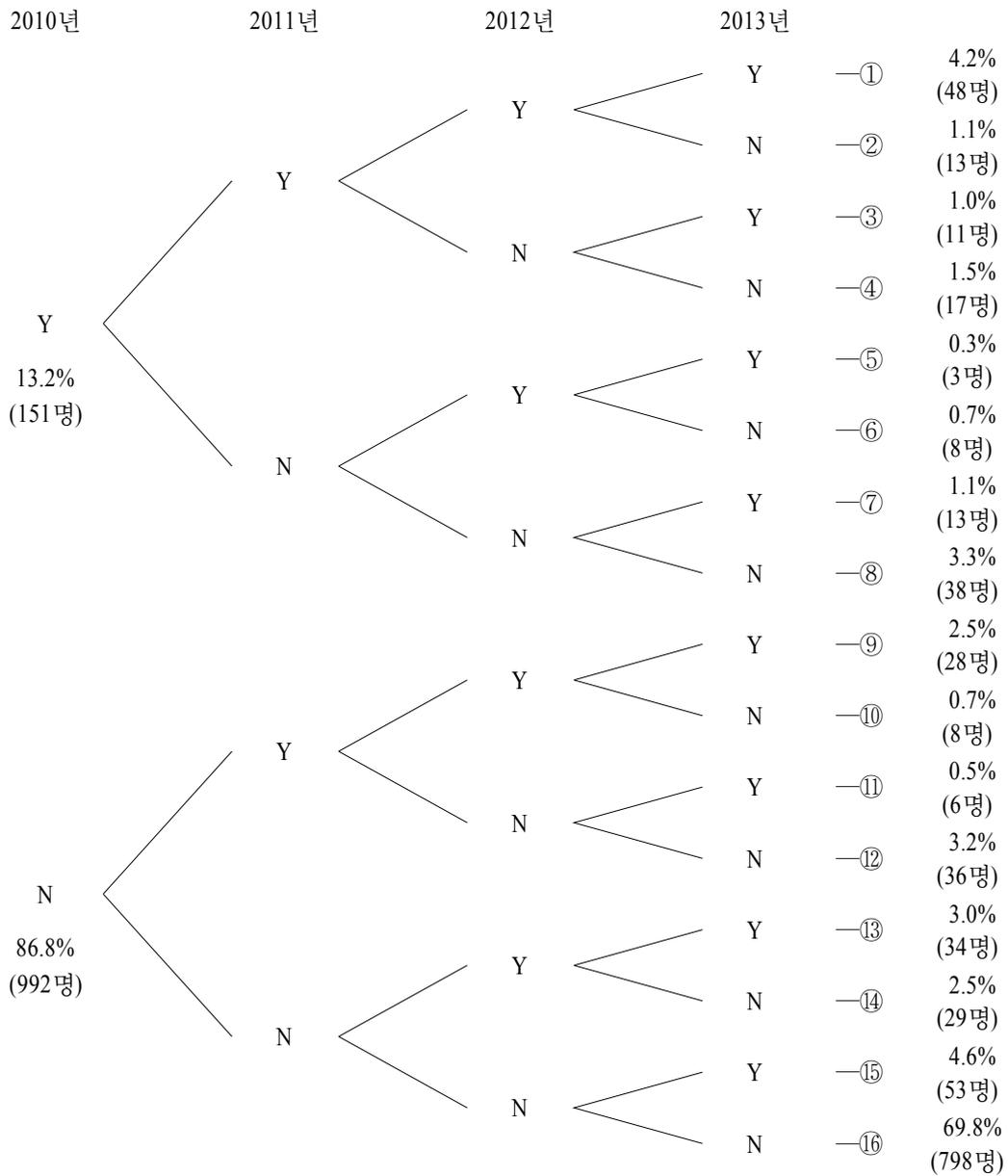
주: 1)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65명 중에서 결측치 24명(7차 9명, 8차 3명, 9차 6명, 10차 6명)을 제외한 한달 평균임.
2)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65명 중에서 결측치 5명(7차 2명, 8차 1명, 9차 1명, 10차 1명)을 제외한 연간 총액임.
3) ANOVA 분석결과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회비 및 기부금은 F=2.74와 F=7.05로 각각 유의수준 5%와 1% 이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청년층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변화

2010년~2013년에 모두 설문에 응답한 청년층 1,143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층(⑩)이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 참조). 즉 최근 4년간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층은 30%이다. 반면 분석기간 4년 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①)은 4.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2013년(최근 1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③+⑦+⑪+⑮)이 7.3%로 확인되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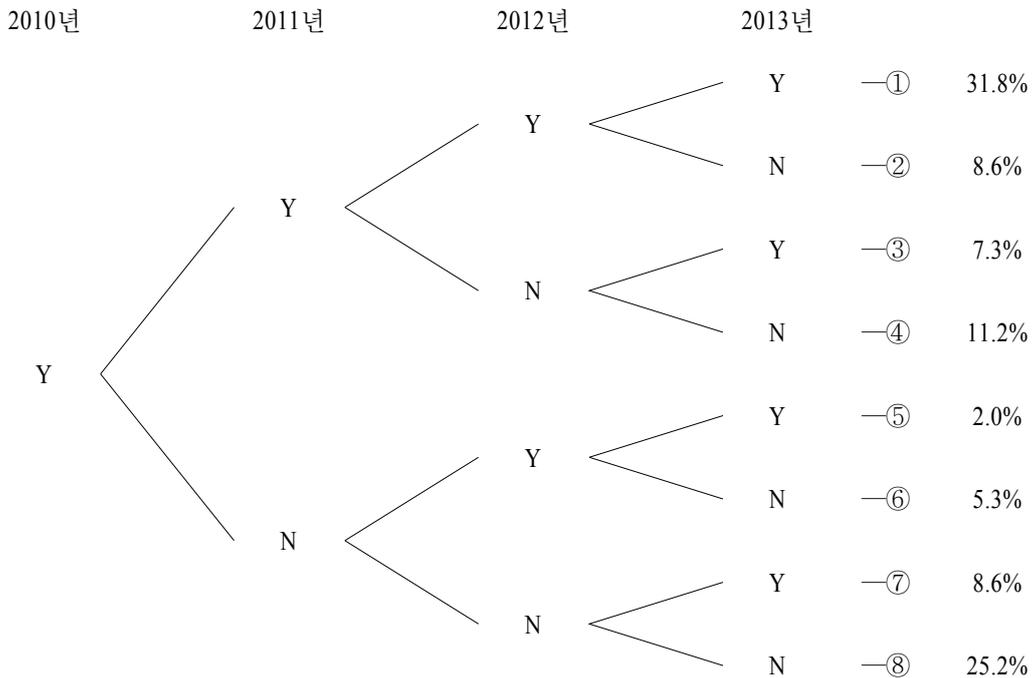
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2010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15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이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부터는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이 25%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따라서 최근 4년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변화를 2번 이상 경험한 청년층은 43%이다. 즉 연도별로 살펴본 자원봉사활동 지속참여 비율은 약 1/3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보다 긴 주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참여는 약 3/4수준(32%+43%)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Y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N은 미참여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7~10차

[그림 2]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변화



주: Y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N은 미참여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7~10차

[그림 3]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

3.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년제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13년(10차)을 기준으로 여성이 45%로 남성 55%에 비해 적은 편이다. 혼인상태는 미혼 86%, 기혼 14%로 미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7차) 미혼 비중이 3%인 것에 비해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53%로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 중소도시 37%, 읍·면 10%로 대부분의 청년층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9%이다. 다시 말해 최근 4년제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71%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쓰는 용돈³⁾은 2010년에 월평균 36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월평균 47만원이다. 패널분석모형에서 용돈은 로그를 취하였으며, 0만원으로 보고된 10명에 대해서는 0으로 전환하였다.

3) 용돈은 주거비용(하숙비, 월세 등)과 교육비(학자금,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를 제외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돈을 의미한다(한국교육고용패널(2013) 설문지. p.75).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7차 (2010년)		8차 (2011년)		9차 (2012년)		10차 (2013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성별	여성	583	44.6	619	45.6	607	45.8	605	44.7
	남성	724	55.4	739	54.4	722	54.2	747	55.3
혼인상태	미혼	1,266	96.9	1,298	95.6	1,219	91.7	1,161	85.9
	기혼	41	3.1	60	4.4	110	8.3	191	14.1
거주지역	대도시	695	53.2	722	53.2	705	53.0	720	53.3
	중소도시	478	36.6	500	36.8	486	36.6	503	37.2
	읍면	134	10.3	136	10.0	138	10.4	129	9.5
부모동거	아니오	946	72.4	970	71.4	938	70.6	956	70.7
	예	361	27.6	388	28.6	391	29.4	396	29.3
월평균 용돈(만원)1)		35.8	21.0	38.4	26.5	44.5	28.6	46.9	30.5
경제활동참여	아니오	700	53.6	634	46.7	388	29.2	273	20.2
	예	607	46.4	724	53.3	941	70.8	1,079	79.8
동아리활동	아니오	1,006	77.0	1,100	81.0	1,150	86.5	1,179	87.2
	예	301	23.0	258	19.0	179	13.5	173	12.8
운동참여	아니오	379	29.0	398	29.3	404	30.4	357	26.4
	예	928	71.0	960	70.7	925	69.4	995	73.6
독서량(권)1)		11.3	17.7	10.0	17.5	7.9	13.2	6.8	10.6
영화관람	아니오	92	7.0	118	8.7	94	7.1	136	10.1
	예	1,215	93.0	1,240	91.3	1,235	92.3	1,216	89.9
문화예술 공연관람	아니오	551	42.2	565	41.6	574	43.2	589	43.6
	예	756	57.8	793	58.4	755	56.8	763	56.4
스포츠관람	아니오	817	62.5	845	62.2	815	61.3	891	65.9
	예	490	37.5	513	37.8	514	38.7	461	34.1
자원봉사 활동참여	아니오	1,139	87.2	1,171	86.2	1,139	85.7	1,132	83.7
	예	168	12.8	187	13.8	190	14.3	220	16.3
코호트	보정	295	22.6	315	23.2	300	22.6	306	22.6
	중학교	644	49.3	673	49.6	670	50.4	676	50.0
	고등학교	368	28.2	370	27.3	359	27.0	370	27.4
N		1,307		1,358		1,329		1,352	

주: 1) 빈도와 비중 대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원자료 7차~10차

연구대상의 경제활동 및 여가문화생활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2010년에는 4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2배인 80%로 나타났다. 현재 동아리활동을 하는 응답자는 2010년 23%에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약 1/2인 13%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은 74%이며, 연간 평균 독서량은 약 11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영화, 문화예술공연, 스포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약 90%의 청년은 영화를 관람하였고 약 56%가 문화예술공연, 약 34%가 스포츠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의 특성은 분석기간 내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1차)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에 대해 추적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2013년(10차)을 기준으로 중학교 코호트는 50%, 고등학교 코호트 27%이다. 나머지 23%는 2010년(7차)에 추가된 보정패널이다. 보정패널은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패널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에서 남성 패널의 군입대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시기에 차이를 주어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성별 비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성패널과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성패널을 추가한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한국교육고용패널 10차(2013)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 2014. p.1).

청년층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대한 패널로짓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Hausman Test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청년층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상태와 용돈수준, 동아리활동, 독서량으로 확인되었다. 기혼일 경우 그리고 용돈금액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독서량이 많을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 외의 여가문화생활 변수에서 운동참여와 영화관람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부(-)의 관계, 문화예술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기혼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6.8% 증가한다(<표 6> 참조). 또한 월평균 용돈이 1만원 증가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3.2% 증가한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5.2% 증가한다. 연간 독서량이 0권인 경우를 기준으로 월1권 미만인 경우는 5.8%, 월 1권 이상인 경우는 7.1%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고정효과모형은 성별을 설명변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성별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ANOVA를 통해 성별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0.35$).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종교에 대해 1차년도에만 조사를 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에서 종교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ANOVA 실시 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64$). 4년제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54%가 종교가 있었다.

〈표 5〉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Coef.	S.E.	Coef.	S.E.
성별(기준=여)	(omitted)		-0.627 *	(0.2604)
혼인상태(기준=미혼)	1.035 **	(0.3747)	1.009 ***	(0.2744)
거주지역(기준=대도시)				
중소도시	-0.165	(0.2541)	-0.157	(0.1686)
읍면	0.077	(0.3660)	-0.223	(0.2648)
부모동거(기준=아니오)	0.153	(0.1900)	0.090	(0.1563)
경제활동(기준=아니오)	0.253	(0.1599)	0.306 *	(0.1483)
ln(월평균 용돈)	0.350 *	(0.1379)	0.418 ***	(0.1189)
코호트(기준=보정)				
중학교	(omitted)		-0.567	(0.3552)
고등학교	(omitted)		-0.847 **	(0.2714)
동아리활동(기준=아니오)	0.655 **	(0.1887)	0.883 ***	(0.1621)
운동참여(기준=아니오)	-0.157	(0.1804)	0.121	(0.1570)
독서량(기준=0권)				
월1권 미만	0.611 *	(0.2375)	0.902 ***	(0.2091)
월1권 이상	0.897 **	(0.2806)	1.352 ***	(0.2406)
영화관람(기준=아니오)	-0.214	(0.2765)	-0.086	(0.2591)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준=아니오)	0.204	(0.1794)	0.742 ***	(0.1544)
스포츠관람(기준=아니오)	0.192	(0.1588)	0.286 *	(0.1370)
상수			-5.760 ***	(0.6287)
Houseman test	102.64***			
Number of observations	1,305		5,346	
Number of groups	339		1,442	
Log likelihood	-466.8		-1,726.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 유의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고정효과모형	
	dy/dx	S.E.
혼인상태(기준=미혼)	0.0679 *	(0.0337)
ln(용돈)	0.0318 **	(0.0094)
동아리활동(기준=아니오)	0.0522 *	(0.0265)
독서량(기준=0권)		
월1권 미만	0.0583 *	(0.0296)
월1권 이상	0.0710 *	(0.0332)

주: 1)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687명 중에서 결측치 5명(7차 2명, 8차 1명, 9차 1명, 10차 1명)을 제외한 연간 총액임.

2)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회비 및 기부금이 0이 아닌 경우의 조건부 연간총액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7~10차(2010년~2013년) 자료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참여요인을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체에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봉사활동 행태에서도 변화가 확인되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2010년 13%에서 2013년 16%로 소폭 증가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은 2010년 5시간 30분에서 2013년 1시간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내는 회비나 기부금은 같은 기간 15만원에 2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및 회비(기부금)의 변화는 대학졸업 이후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제약 증가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2010년 46%, 2013년 80%).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최근 4년간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층이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최근 4년간 자원봉사활동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층은 30%이다. 분석기간 4년 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은 4.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은 32%였으며, 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변화를 2번 이상 경험한 청년층은 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도별로 살펴본 청년층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참여율은 1/3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보다 긴 주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참여율은 약 3/4수준(32%+43%)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은 혼인상태와 용돈수준, 동아리활동, 독서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평소 독서량이 많은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소규모 지역에 대한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여가활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완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문화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제활동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활기찬 여가문화활동의 참여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며,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개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이 일과 여가에서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시간과 노력봉사를 제공하는 나눔활동인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나눔활동인 기부와 후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종속변수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패널조사가 소수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연구의 한계로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의 특성상 성별 및 종교, 연령이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종교에 대한 설문문항을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종교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 중3코호트에 대해서는 1차년도(2004년) 외에 4차년도(2007년) 신규패널이 추가되면서 종교가 다시 조사된 적이 있는데,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봉사활동현황자료, 추계인구자료, 2015. 2. 6자 인출.
- 권현수(2010), 자원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연령별 다집단 분석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pp. 83-107.
- 김성중·엄성호(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pp.59-82.
- 김육·송미영(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pp.329-359.
- 김진숙,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종수(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pp.21-45.
- 박성복·김규희(2008),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복지행정논총, 18(2), pp.91-113.
- 서영숙·남진열·김상미(2012), 고교시절 사회봉사활동 관련요인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pp.285-303.
- 이경상(2014), 청소년 봉사활동의 실태 및 발전과제, 법정리뷰, 31(1), pp.193-224.
- 이성은(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여름, pp.313-335
- 이혜숙(2003),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pp.276-287.
- 최항순·정태자(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개발의 관계: 성남시 중·고생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1), pp.311-33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한국교육고용패널 10차(2013)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
- 허성호·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21(3), pp. 143-164.
- 홍연숙(200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결정요인, 청소년복지연구, 4(1), pp.75-97.
- Johnston, J. and Dinardo, J. (2007), Econometric Methods, Forth Edition, McGraw-Hill. Singapore.
-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 OECD social indicators.

❖ Abstract ❖

A longitudinal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in youth

Hwang, Nam Hui(KIHAS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of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using the wave 7-10(2010-2013) of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o overcome endogeneity of volunteering, fixed-effect model was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marital state, allowance, club participation and read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Married people and graduates who are participated in a club tend to have higher volunteer participation. Allowance level and reading volume have a positive effect on volunteer activity.

Key words: volunteer activity, volunteer participation